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025. 3.

CEPA Insight

- 인도 정부, 2030년까지 글로벌 조선 허브로 육성 계획
- 무협, '韓-인도 경제인 비즈니스 간담회'...윤진식 "교류 확대"

■ 인도 정부, 2030년까지 글로벌 조선 허브로 육성 계획

- 인도 조선업 육성에 박차,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을 글로벌 조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
 -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조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인도가 조선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국내 조선업계는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시장 선점 기회를 발 빠르게 모색하고 있음.
 - 4일 인도 경제매체 이코노믹타임즈는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인도에 조선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 초 임직원이 인도를 방문해 부지를 물색했다고 보도. HD현대중공업은 인도 남동부 타밀 나두주의 항구도시 투티코린과 커들로어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 "현지 조선소 건설 등 세부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을 글로벌 조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 'MIV 2030'을 발표한 이후 한국 조선업계와의 협력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음. 쉬리 티케이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과 인도 국영 조선소 코친십야드의 마두 나이르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방한해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를 찾기도 함.
 - 지난 1월에는 인도 항만해운수로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오션 대표단과의 면담 사실을 공개. 당시 인도 항만해운수로부는 "인도와 한국 간 잠재적인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화오션 대표단을 만났다"며 "인도 조선소와 한화오션 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기회를 모색했다"고 전함.
 - 2023년 기준 세계 선박 제조 시장에서 인도의 점유율은 0.06%에 불과. 대형 조선소가 적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58%)·한국(27%)·일본(9%)에 비해 크게 뒤쳐진 상태. 인도 정부는 10위권 밖인 자국 조선업을 2030년까지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로 끌

어울린다는 목표 아래 최대 30%의 선박 건조 보조금, 해양 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책을 펼칠 계획. 인도의 '구매'에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들은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인도 시장 진출이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인도 조선업을 둘러싼 전망은 밝음. 파인엑스트라 리서치는 2022년 9000만 달러(약 1316억원) 수준이던 인도 조선 시장이 2033년에는 81억2000만 달러(약 11조869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출처: 국민일보 / 2025. 3. 5.)

■ 무협, '韓-인도 경제인 비즈니스 간담회'...윤진식 "교류 확대"

● 한-인도 주요 기업 간 네트워킹 가져

-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인도 경제인 비즈니스 간담회'를 개최. 이번 행사는 인도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산업협회(CII) 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인도 경제인 간의 교류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
- 윤진식 무협 회장은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현재, 세계 5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혁신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그린에너지·디지털경제·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인 간 교류를 확대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무협은 인도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한국과 인도에서 각각 개최하는 등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또 무협은 인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함. 인도위원회를 통해 인도산업협회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상호 정보교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확대해 양국 기업인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할 예정. (출처: 파이낸셜뉴스 / 2025. 3. 6.)

■ 시사점

- 인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인도를 모든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실현해나가고 있음. 막강한 정부의 지원과 거대한 자본, 젊은 노동력으로 무장한 인도가 성장을 이루어나갈것이라는것에는 이견이 없음.
- 한국의 경우, 작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하는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임.
- 인도시장이 가격에 민감한 시장인 점, 인도 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 국민성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진출방안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